'캄' 텝퐁스님 초파일 맞아 방한

캄보디아 최고 불교지도자 텝퐁스님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24일 오전 내한한 텝퐁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했다. 월주스님은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내방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캄보디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스님의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텝퐁스님은 "7월 20일 새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끝나면 캄보디아는 안정될 것"이라며 "선거이후 월주스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답했다. 텝퐁스님은 5월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교육기관과 유명사찰을 방문할 계획이다.

"복지사업 · 인재양성에 주력"

진각종 새 종의회의장 휴명 정사

진각종은 22일 스승총회에서 37명의 제10대 종의회 의원을 선출한데 이어 종의회 의장 선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종의회 의장에 선출된 휴명정사는 "예기치 않은 일이라 당혹스럽다. 그러나 의장 소임을 맡게 된 이상 교도들의 중의를 모아 좋은 제도를 세우고 종단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리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75년 진각종 통리원 재무부 근두를 시작으로 회당장학회, 재무부장, 중앙교육원 교육부장, 교법부장, 사서실장 등 종단행정을 두루 거친 휴명정사는 "종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포교와 사회에 봉사, 기여할 수 있도록 종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 "종단 역사 반세기를 맞아 인재양성을 통한 종단 내실 다지기와 바람직한 종단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교사불자 · 청교련 연계 활동강화"

파라미타 새 사무총장 법경 스님

"앞으로 2~3년 간은 체계적인 조직정비를 위해 전국 교사불자들과 연계해 청소년 조직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파라미타 사무총장으로 17일 임명된 법경스님(포교원 연수국장)은 파라미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직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총무원이나 포교원 등에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전국적인 지부지회 조직이 우선해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청소년교화연합회와도 연계해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법경스님은 "재정확보를 위해 전국 각지 사찰 및 단체에 파라미타의 위상과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국난극복 기정안녕 기원

무공 팔공산 동화사 주지는 5월1일 오전10시 대웅전에서 일만등 광명불사 회향 및 국난극복과 가정안녕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053)982-0101

안양교도소 재소자 위문

동광 도선사 주지는 24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4천여 재소자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제공했다.

'불교적 태교' 주제 강연

성우 파계사 주지는 28일 개원 2주년을 맞은 대구 지장선원(주지 지공) 법당에서 "불교적 태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불우노인 초청 경로잔치

종본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장 스님은 17일 성북구민회관에서 관내 불우노인 5백여명을 초청, 봉축법회 및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세계 불교 웅변' 전북대회

범여 내장사 주지는 19일 제28회 세계불교도 법륜기 수여 웅변대회 전북대표 선발대회를 내장사 해운당에서 거행했다.

경승실 봉사지등 표창

혜광 국립경찰병원 경승실장 스님은 30일 6시 30분 직원불자 법우회 회원 박무식(총무계장) 신동민 · 윤애영(자원봉사자) 등에게 각각 감사패와 봉사상을 수여했다.

원효성사 1312주 추모재

김영태 원효학연구원 원장은 25일 경주 분황사에서 '제1312주기 원효성사 봉찬대재'를 봉행했다.

종암경찰서 경승에

수성 진각종 재부부장(신촌심인당 주교)과 지현 진각복지회 사무국장은 23일 종암경찰서 경승으로 위촉됐다.

알뜰장터 개설

이근우 청담종교 교장은 29일부터 5월1일까지 교내에서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알뜰장터를 개설한다.

선문화대 서울분교 개원

김덕수 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은 22일 성북구 장위동 영건빌딩에서 선문화불교대학 서울분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동선동에 보현정사 개원

백승진 법사는 18일 서울 동선동에 보현정사를 개원하고 주지 법사로 취임했다. (02)927-3301

이봉주 한국新 영광뒤엔 모친 불공이…

지난 19일 네델란드 '98로테르담마라톤대회'에서 2시간7분44초라는 기록으로 새로운 한국신기록을 세운 이봉주선수의 영광뒤엔 감동스런 모정불심이 있었다.

"늘 부처님께 봉주가 아무 사고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가피를 내려주길 기원했다"는 이선수의 어머니 공옥희보살(63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공보살은 이번에도 로테르담에 있는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저녁 그의 빈 밥그릇에 정수를 가득 채우고 부처님께 승리를 발원해 왔다.

농사일하는 틈틈이 집 근처의 암자를 찾아 불공을 올린다는 공보살은 "봉주의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부처님께 의지했다"고 이번 쾌거를 부처님의 가피로 돌렸다.

"보왕삼매론은 사랑의 매"

부처님오신날 화제의 인물

佛書에 반한 기독교신자 이상훈 교수

"지각을 하다니…〈보왕삼매론〉 10번 써 제출해."

"아니 컨닝을 해? 안되겠군, 〈보왕삼매론〉 20번 써내."

"침을 함부로 뱉다니, 〈보왕삼매론〉 2번써서 연구실로 가져와."

이쯤되면 불교대학에서나 있음직한 교육방법으로 알아듣기 십상이다. 혹시 불자교수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교수의 교육비법이다. 그래서 '보왕삼매론 교수'로 통하는 이 주인공은 수원대 환경공학과 이상훈교수(49세).

이교수가 처음 〈보왕삼매론〉과 인연지은 것은 91년 수원대에 함께 부임해온 같은학과 장지연교수(42세)의 연구실에서 두루말이로된 〈보왕삼매론〉을 처음 발견하고부터다. 교리와 수행을 겸비한 독실한 불자 장교수의 방에서 그 숱한 불서 가운데 유독 둘둘 말려있던 〈보왕삼매론〉을 펴읽으며 감동을 받았던 것. 당장 〈보왕삼매론〉을 표구해서 학과사무실 벽에 걸었고, 인쇄해서 수십장을 서류봉투에 넣고 다니면서 수업시간에 경고 채찍으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무례하거나 공중도덕에 어긋날때는 가차없이 '보왕삼매론 채찍'을 가했다. 특히 학기 초, 지나치게 수업분위기가 소란할 경우 〈보왕삼매론〉을 2번씩 쓰게하고 그것을 출석부로 대신하곤 했다.

〈보왕삼매론〉을 1번 쓰는데는 족히 15분이 걸린다. 2번씩도 30분…쓰다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교수의 지론.

"8년여 이 교육방법을 사용하지만 종교적으로 항의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내가 알려진 착실한 기독교인인데다, 〈보왕삼매론〉을 강제로 쓰게한다고 해서 종교운운할 소지가 전혀 없는 진리니까요. 간혹 불평하는 몸짓을 보일때는 '보왕삼매론 10항'을 강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그러면 두말없이 써냅니다."

8년째 학생에 '사경' 과제 환경강의땐 '무소유' 활용

이교수의 소문난 교수법의 또하나는 교양과목 '환경과학'강좌에 법정스님 저서 〈무소유〉의 독후감 과제. 전공학생들에게 〈무소유〉독후감은 필수이다. 91년부터 실시해온 교수법이니 〈무소유〉를 읽은 학생만도 적게잡아 3천여명에 이른다는 계산.

"불교는 환경친화적인 종교입니다. 불살생 무소유 정신 등이 환경문제의 대안이라는 것이지요. 오염물질에 대한 사후처방 보다는 근본적으로 생활방식을 바꿔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세계환경학회도 불교사상 노장사상에 눈돌리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환경교육의 기초필수로 〈무소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교수의 독특한 교수법은 교단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위영란 기자

수요 인터뷰

문화관광부 신낙균 장관

"사찰문화재 보수 지원확대"

- 17일 대통령에게 문화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관광흑자를 위한 특별대책안을 밝히셨습니다. 사찰이나 불교유적지들이 중요 관광자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었는지요.

▲불교문화재 보수를 위한 정부지원을 점차 확충해 나갈 것이며 사찰의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등 재현 전시 및 연등축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발우공양 의식 체험 프로그램과 범패 승무등도 자랑스런 우리 문화유산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 작업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등 행정 추진과정에서 소홀히 대한다는 느낌을 주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 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백제 신라 가야 등 전국 7개 문화권 유적종합정비 5개년 계획을 세워 금년부터 2002년까지 1천 8백 11억을 투입해 경주 황룡사지등 52건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 정권에서는 종교편향 정책의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정한 정책수립및 집행을 통하여 종교간 편향 시비를 사전에 불식하고 종교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공정한 조정자로서 역할을다하겠습니다. 종교예술제, 종교지도자세미나 등 범종교화합및 종교간 연합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종교간의 대화기회를 주선 장려하여 종교화합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계 국난극복노력 감사 큰스님 의견 정책 반영 종교편향시비 사전차단

- 불교계 일부에서는 장관님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 종교관은 어떠십니까.

▲저는 학창시절 신학을 전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종파를 가리지 않고 개방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두달동안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나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종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연태 기자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산 일공
종정사서실장 임 체 관

■원로원
원 장 황 법 운
위 원 최 법 신
위 원 박 송 산
위 원 김 재 령
위 원 정 선 명
위 원 박 효 계
위 원 현 천 호
위 원 박 원 담
위 원 한 원 각

■승정원
원 장 송 보 인

■종의회
의 장 조 성 관
부 의 장 김 인 관
위 원 차 성 인
위 원 이 정 광
위 원 류 무 송
위 원 손 지 관
위 원 김 체 의
위 원 우 명 허
위 원 엄 선 덕
위 원 김 진 연
위 원 정 혜 암
위 원 양 체 정

■종무원
총무원장 대행 겸 부원장 최 법 륜
총무부장 장 체 승
총무국장 이 체 인
재무부장 박 대 월
사회부장 임 보 광
사업부장 구 성 도
사업국장 강 체 도

■포교원
원 장 조 성 견
부 장 주 체 법

■교육원
부 장 이 체 원
국 장 이 진 운

■규정원
원 장 민 성 운
국 장 박 체 성

■문화원
원 장 김 선 진

인천종무원장 장 체 승
경기종무원장 차 성 인
충남종무원장 김 체 의
전남종무원장 이 정 광
경북종무원장 손 지 관
강원종무원장 류 무 송
제주종무원장 한 진 성

종립 동원불교대학 학장 김 법 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정 영산 일공 합장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 TEL: : 857-5094 ■ FAX : 859-1042